

이재상 박 사 형법 기본강의

■ 강의일정 2019년 2/21(목) ~ 3/13(수), 오후, 월~토 강의, 총 18 회(총론: 10회, 각론: 8회)

오후 1:40 ~ 5:10

* 강의시작은 오후 1:40입니다.

■ 교 재 새로 쓴 로스쿨 형법(전정 3판, 2019년, 월비스刊)

+ 형법기본강의 OX 복습자료(매일 제공)

+ 특수 강의자료(제공)

■ 강의특징 1. 교재소개

(1) 본 교재는 형법 기본서로는 시중에 출간된 수험서 중에서도 가장 적은 분량인 약 743 쪽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도 훨씬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더 적은 분량으로 더 많은 형법판례와 이론의 내용을 수록하면서 동시에 더 효율적으로 각종 고등고시 국가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수험서를 만들었습니다.

(2) 약 3,800여개의 기출+최신 형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교재의 분량 대비 아주 많은 양의 판례 숫자라고 자부합니다.

① 제8회 변호사시험 형법 객관식 문제에서 단 1개의 판례지문만이 본 교재에 수록되지 않았을 뿐 나머지 모든 출제 지문들은 본 교재에 수록된 것이었습니다.

② 판례나 형법이론의 내용을 핵심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가능하면 압축된 내용으로 수록하였기 때문에 적은 분량의 교재임에도 아주 많은 판례를 담을 수 있었습니다.

(3) 본 교재에 수록된 거의 대부분의 판례의 내용을 Key-Word 위주로 요약, 배치하여 판례 정리를 한층 더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 ① 판례의 단순한 결론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대법원의 논지도 최대한 축약을 하여 수록함으로써 논지와 결론이 한 눈에 들어 와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 ② 독립적인 박스 형식으로 만든 핵심 중요판례에는 머리말로 판례의 핵심요지를 1~2줄로 다시 축약하여 머리말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시험실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최종정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할 것입니다.
- ③ 동지판례들을 하나로 묶어서 쪽 나열하는 부분에서는 핵심 중요판례의 경우에는 판례 앞에 판례취지를 요약한 제목을 일일이 달아놓음으로써 키워드 중심으로 판례를 쉽게 이해하고 암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제8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문제의 모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 ① 제8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객관식 문제 지문은 물론 사례형 문제의 쟁점에 이르기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하여 기출표시를 하여 해당 판례나 형법이론을 중요도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② 각 기출지문의 출제 포인트가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판례의 내용이나 형법이론을 정리하여 다음번 시험에서 다시 출제될 경우 어느 부분을 더 세심하게 보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2. 중점적 강의진행사항

(1) 형법 중요쟁점의 체계적 정리와 선택형 기출문제의 분석을 통한 형법 단권화 구축

- ① 변호사시험 형법과목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핵심적인 중요쟁점을 엄선하여 정리할 것입니다. 철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자주 출제되는 쟁점은 '자세하고 철저하게' 함께 정리하고,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은 수험생 자신의 정리에 맡길 것입니다.
- ② 강의교재에 수록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시, 법전협 모의시험이나 사시에서 출제된 기출문제를 분석, 해설하여 출제자의 출제의도를 파악하고 빈출쟁점을 뽑아내어 향후 출제될 쟁점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본 교재의 자랑인 '누적 기출표시'는 향후 출제 가능한 중요쟁점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최고의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2) 선택형 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① 출제 가능성이 높은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공부합니다.

최근 번시의 출제경향은 철저하게 판례위주로 출제된다는 것입니다. 판례위주로만 공부해도 얼마든지 합격할 수 있다는 말이 전혀 지나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많은 판례를 모두 다 습득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출제가능성이 높은 판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판례 : 번시나 사시 등 각종 국가시험에서 출제된 기출판례 + 최신 3년간 중요판례. →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시사성이 있는가, 중요쟁점을 담고 있는가, 누적된 판결의 연결선상에서 나온 판결인가,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인가 하는 것이 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본 강의는 출제가능 한 중요판례의 취지와 의미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습득하는 것에 가장 중점을 둘 것입니다.

② 선택형 이론문제를 대비하여 형법이론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살펴볼 것입니다.

선택형 문제는 순수한 이론문제로도 출제됩니다. 그러므로 단 하나의 이론문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에는 모든 형법이론과 쟁점들을 일목요연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되어 있으며, 개별쟁점에 따른 각 학설의 내용을 가능하면 외우기 쉽게 짧게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변시 이론문제 기출지문과 사시 제44회 시험 이후의 기출지문들을 책 내용 속에 빠짐없이 적어놓아 책 내용을 읽는 것이 곧 기출지문을 보는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중요기출지문에는 기출표시도 잊지 않고 해 놓았습니다.

(3) 사례형 문제 완벽대비를 위한 강의진행

① 사례의 검토와 쟁점추출

사례형 문제의 시작은 쟁점추출입니다. 사례의 검토를 통하여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숙지해 나갈 것입니다.

② 답안의 작성방법

똑같은 답안이라도 고득점을 하는 답안과 그렇지 못한 답안이 있습니다. 보통 형법 사례형 문제의 결론은 알겠는데 답안작성이 막막하다고 하소연하는 수험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의 목차구성을 할 것이며, 해당 논점을 서술할 때 반드시 포함해야할 내용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강의하겠습니다.

③ 실제 답안 현출시에 사용할 간결한 표현, 판례문구 정리.

형법이론이나 판례의 내용 이외에도 실제 답안을 작성할 때 사용해야 할 표현방식과 문구,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한 답안의 분량조절 등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3. 선택형 문제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1) 선택형 지문의 출제방식을 꿰뚫고 있어야 합니다.

- ① 선택형 지문은 궁극적으로 OX 중 어느 하나의 형태로 출제됩니다.
- ② (O)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기본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 ③ (X)의 형태로 출제될 때에는 형법이론과 판례의 내용이 출제지문에서는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숙지해야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결국 기출지문을 많이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 ④ 교재의 이론부분은 기출지문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들이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는 기출표시까지 해 두었습니다. 특히 '기출지문 연습'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2) 선택형은 물론이고 사례형 문제에서도 고득점을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 ① 바로 1년에 3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입니다.
- ② 법전협 모의시험 문제는 변시 출제문제를 예측할 수 있는 바로미터입니다.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상당수 지문들이 그 해 변시에 출제됩니다. 물론 지문은 변형되어 출제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한 형법이론이거나 판례입니다. 이번 제7회 변시에서도 이런 출제경향은 전혀 변함이 없었습니다.

4. 사례형 문제 고득점을 위한 공부방법론

① 사실관계의 분석

사실관계의 분석은 사례해결의 출발점입니다. 사실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를 통해서 나타난 명백한 사실관계는 '주어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 애매한 사실관계는 가능한 경우의 수를 모두 검토해서 분석해야 합니다.

② 사안에 관한 쟁점의 정리

사실관계에 대한 분석이 끝나면 주어진 사안에서의 쟁점을 검토할 순서에 따라 개념적으로 추출정리하여야 합니다. 이 때 주의할 것은 논점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중요한 논점이라고 하여 그것만 열심히 분석하고, 중요하지는 않지만 빠트려서는 안 되는 논점을 제외한다면 답안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본인의 노력에 비해 점수가 나오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③ 사안의 체계적 검토와 쟁점에 대한 해결

범죄체계에 따라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의 순서대로 가벌성 여부를 심사확정해 나가며 그 과정속에서 쟁점들을 해결한다. 위법성과 책임은 사례에서 특별한 사유가 언급되지 않을 때에는 단순히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언급을 하면 됩니다.

사안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하여 그에 따라 범죄의 성부 내지는 그 근거가 달라지는 곳에서는 실무위주의 변호사시험의 특성상 학설의 소개는 최소화하고, 판례의 태도를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판례에 따른 결론을 내릴 경우 무난한 답안이 될 수 있습니다.

④ 결론과 죄수관계

결론 그 자체보다는 결론으로 이끌어 가는 논증과정이 중요하므로 이를 간단히 다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야 하며, 여러 범죄가 성립한 경우는 반드시 그들 사이의 죄수관계를 반드시 판단해야 합니다.

1. 제8회 변시 형법 사례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100% 본 강사가 쓴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와 본 강의의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2. 주요 쟁점인 ① 교사범의 공범관계로부터의 이탈 ② 합동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③ 환전통화의 장물성 ④ 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 ⑤ 정범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범에 대하여도 객체의 착오인가 여부 ⑥ 공문서부정행사죄의 문제 등등 단 하나의 쟁점도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입니다.
3.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제8회 변시에서 가장 답안을 작성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다음의 기출 쟁점과 본 교재의 출제문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제8회 변시 형법사례 제2문】

甲과 乙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마련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따라 甲은 A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수사관이다. 당신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어 그 계좌에 곧 돈이 들어올 것이다. 그 돈을 포함해서 계좌에 있는 돈 전액을 인출해서 검찰청 앞으로 와라.”라고 말했다. 乙은 B에게 전화하여 “서초경찰서 경찰이다.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있는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A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 B는 A 명의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했고, A는 그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자신의 계좌에 있던 전액 1,500만 원을 인출한 다음 甲에게 교부했다. 甲과 乙의 죄책은?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 사례(답안지 핸드북) 35번 문제】

(2) 乙은 C의 돈을 편취할 의사로 2015.11.5. C에게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서울중앙지검 검찰사무관 등을 사칭하면서 우선 C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으니 C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확인해야 한다면 검사에게 상담을 받으라고 하면서 C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그 다음에는 검사를 사칭하면서 C가 가해자가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면 C로 하여금 C의 계좌에 있는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乙의 공범에게 전달하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乙은 2015.11.5. 검찰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D에게 C의 계좌에 1,400만 원을 입금하라고 유도하고, C에게도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찾아서 전달하도록 하여 D로부터 1,400만 원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C가 자기 계좌에서 인출하여 전달한 1,880만 원 중 1,400만 원은 D가 입금한 돈이고, C는 乙을 금융감독원 직원이나 검찰직원 등으로 알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제공한 후 그 계좌에 입금된 위 돈을 공공기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전달하였을 뿐인 것이었다.

(2) 사례 (2)에서 乙의 죄책을 논하시오. (30점)

4. 설문의 내용이 서로 100% 일치하고 있습니다.
5. 단 5회 강의로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70점 이상의 고득점이 현실이 됩니다.

강좌별 진도표

횟수	날짜	예정진도
■ 제 1 회	2/21(목)	[형법총론]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적용범위, 행위의 주체(법인)
■ 제 2 회	2/22(금)	부작위범/인과관계/객관적 귀속/구성요건적 고의
■ 제 3 회	2/23(토)	사실의 착오/과실범/결과적 가중범
■ 제 4 회	2/25(월)	위법성론
■ 제 5 회	2/26(화)	책임론(1)
■ 제 6 회	2/27(수)	책임론(2), 미수론
■ 제 7 회	2/28(목)	공범론(1)
■ 제 8 회	3/1(금)	공범론(2)
■ 제 9 회	3/2(토)	공범론(3), 죄수론
■ 제 10 회	3/4(월)	형벌론
■ 제 11 회	3/5(화)	[형법각론]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 제 12 회	3/6(수)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제 13 회	3/7(목)	재산에 대한 죄(1)
■ 제 14 회	3/8(금)	재산에 대한 죄(2)
■ 제 15 회	3/9(토)	재산에 대한 죄(3)
■ 제 16 회	3/11(월)	재산에 대한 죄(4)
■ 제 17 회	3/12(화)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제 18 회	3/13(수)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